

# 대학생의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차이

## Association between Carrying a Toothbrush and Oral Health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정미애, 김민지, 하정은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Mi-Ae Jeong(comet810@hanmail.net), Min-Ji Kim(icealswl@gmail.com),  
Jung-Eun Ha(haje\_grace@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관리용품 휴대율을 조사하고, 구강관리용품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를 파악하며, 대학생이 학교에서 칫솔질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여, 대학생들이 적절하게 구강건강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소재 K대학 생활관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생활관생 총 504명 중에서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일부를 제외한 198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칫솔을 휴대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45.5%로 조사되었고, 구강관리용품(칫솔)을 휴대하는 대학생들이 휴대하지 않는 대학생들보다 구강건강관련 관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하루 칫솔질 횟수, 잠자기 전 칫솔질 여부 및 음주 후 칫솔질 여부와 같은 구강건강행태는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는 대학생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활 터 양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의 제공이 어렵다면, 구강관리용품의 휴대를 권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구강보건활동에 대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 중심어 : | 구강관리용품 | 구강건강행태 | 구강건강관심도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he association between carrying a toothbrush and oral health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angwon-do province.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198 students (111 males and 87 females), aged 18 and 25 year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he proportion of carrying a toothbrush was 45.5%. Self-rated oral health and oral health interest were a significant higher in carrying a toothbrush group than no-carrying group. Furthermore, oral health behaviors, such as the number of tooth brushing during the day, tooth brushing before to sleep and after drinking, were a significant higher in carrying a toothbrush group than no-carrying group. The present paper discusses the carrying a toothbrush associated with good oral health behaviors.

■ keyword : | Oral Health Care Product | Oral Health Behaviors | Oral Health Interest |

##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성인 초기로써 이 시기에 정착되는 건강행태가 전반적인 성인기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기 쉬워, 부정적인 건강행태의 올바른 수정이 필요하다[1].

김수진과 박인숙은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하였을 때, 구강건강 관심도가 낮고, 구강건강의 중요성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2]. 또한 지민경은 대학생들이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활동제한을 경험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활동제한경험률은 24.1%, 평균활동제한일수는 0.44일로 조사되어, 구강질환으로 인한 학업수행지장 및 학업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3].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20~24세 영구치 우식 유병률은 39.2%로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치통경험률은 44.1%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 정도가 구강질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59.3%, 치실 사용률은 20.3%, 치간 칫솔 사용률은 14.1%로 조사되었다[4]. 이와 같이 성인 초기 대학생들은 구강보건 인식수준이 낮고, 많은 대학생들이 구강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구강보건사업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청년의 구강건강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대학교에서는 양치시설과 같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물적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구강관리용품(칫솔)을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행태와 같은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5-7], 대학생들이 생활터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구강관리용품 휴대율을 조사하고, 구강관리용품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

행태를 파악하며, 대학생이 학교에서 칫솔질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여, 대학생들이 적절하게 구강건강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K대학 생활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활관에는 총 50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일부를 제외한 19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25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0.3세로 나타났고, 남자는 111명(56.1%), 여자는 87명(43.9%)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방법

구강관리용품(칫솔)의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과 등을 조사하였고, 칫솔의 휴대 여부와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행태를 조사하였다.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조사하였고, 구강건강관심도는 관심이 많음, 보통, 적음으로 조사하였다. 구강건강행태는 일일 칫솔질 횟수, 잠자기전 칫솔질 여부, 음주 후 칫솔질 여부, 보조구강관리용품(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 등)의 사용 여부, 지난 1년간 치과 방문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교 내에서의 칫솔질 수행 여부 및 칫솔질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SPSS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하였고, 구강관리용품(칫솔) 휴대 여부에 따라 구강건강행태는 카이제곱검정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표 1]과 같이, 전체 198명으로 남자는 111명(56.1%), 여자는 87명(43.9%)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전공별로는 보건대가 92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은 57명(28.8%), 인문사회대학은 49명(24.7%)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구강관리용품(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는 대상자는 90명(45.5%)으로 나타났고, 108명(54.5%)은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 111명 중, 36명(32.4%)이 칫솔을 휴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자는 87명 중 54명(62.1%)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칫솔을 휴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에 따른 칫솔 휴대 비율은 보건대, 인문사회대, 공과대 순으로 55.4%, 42.9%, 31.6%로 보건대가 가장 높았고, 공과대가 가장 낮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전체	구강관리용품의 휴대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98 (100.0)	90 (45.5)	108 (54.5)
성별			
남성	111 (56.1)	36 (32.4)	75 (67.6)
여성	87 (43.9)	54 (62.1)	33 (37.9)
전공			
보건과학대학	92 (46.5)	51 (55.4)	41 (44.6)
공과대학	57 (28.8)	18 (31.6)	39 (68.4)
인문사회대학	49 (24.7)	21 (42.9)	28 (57.1)

#### 2.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수준

구강관리용품 휴대 여부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수준은 [표 2]와 같이, 칫솔을 휴대한 90명의 학생 중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3.3%로 휴대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았고, 칫솔을 휴대하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칫솔을 휴대한 대상자보다 높았다( $p=0.005$ ).

표 2.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수준 (n, %)

	전체	좋음	보통	나쁨	$p^*$
전체	198 (100.0)	64 (32.3)	97 (49.0)	37 (18.7)	
휴대함	90 (45.5)	39 (43.3)	40 (44.4)	11 (12.2)	0.005
휴대안함	108 (54.5)	25 (23.1)	57 (52.8)	26 (24.1)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 3.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관리용품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는 [표 3]과 같이, 구강건강관심도는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한 90명의 학생 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47명(52.2%)으로 휴대하지 않은 학생의 14.8%보다 높게 나타나,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한 그룹이 휴대하지 않은 그룹보다 구강건강관심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

표 3.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n, %)

	전체	높음	보통	낮음	$p^*$
전체	198(100.0)	63(31.8)	108(54.5)	27(13.6)	
휴대함	90(45.5)	47(52.2)	36(40.0)	7(7.8)	< 0.001
휴대안함	108(54.5)	16(14.8)	72(66.7)	20(18.5)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 4. 구강관리용품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구강관리용품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는 [표 4]와 같이,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의 칫솔질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 한번 이하는 6.7%, 하루 두 번은 22.2%, 하루 세 번 이상은 71.1%로 나타났으나,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지 않은 그룹은 하루 한번 이하가 11.1%, 하루 두 번이 49.1%, 하루 세 번 이상은 39.8%로 나타나 휴대하고 있는 그룹의 칫솔질 횟수가

휴대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01$ ).

표 4. 구강관리용품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n, %)

	구강관리용품의 휴대 여부		p*
	예	아니오	
전체	90 (45.5)	108 (54.5)	
일일 칫솔질 횟수			
1회 이하	6 (6.7)	12 (11.1)	< 0.001
2회	20 (22.2)	53 (49.1)	
3회 이상	64 (71.1)	43 (39.8)	
잠자기 전 칫솔질 여부			
예	85 (94.4)	92 (85.2)	0.035
아니오	5 (5.6)	16 (14.8)	
음주 후 칫솔질 여부			
예	83 (92.2)	73 (67.6)	< 0.001
아니오	7 (7.8)	35 (32.4)	
보조구강관리용품 사용			
치실 또는 치간칫솔	29 (32.2)	23 (21.3)	0.133
구강양치액	21 (23.3)	19 (17.6)	
기타	4 (4.4)	7 (6.5)	
사용안함	36 (40.0)	59 (54.6)	
지난 1년간 치과방문			
예	56 (62.2)	50 (46.3)	0.061
아니오	25 (27.8)	38 (35.2)	
기억나지 않음	9 (10.0)	20 (18.5)	

\*카이제곱검정법에 의한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의 잠자기 전 칫솔질 여부와 음주 후 칫솔질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에서 잠자기 전 칫솔질 및 음주 후 칫솔질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의 보조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치실 또는 치간칫솔은 32.2%, 구강양치액은 23.3%로 나타났고,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지 않은 그룹은 치실 또는 치간칫솔 사용률이 21.3%, 구강양치액은 17.6%로 나타나,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는 대상자가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과 같은 보조구강관리용품의 사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는 그룹의 1년 이내 치과방문을 조사한 결과, 1년 이내에 치과를 방문하였다는 대상자는 62.2%이었으나,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지 않은 그룹은 1년 이내 치과를 방문하였다는 대상자

가 46.3%로 나타나, 1년 이내 치과 방문율은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고 있는 대상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 5. 학교 내에서 칫솔질 여부 및 칫솔질 하지 않는 이유

학교 내에서 칫솔질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학교에서 이를 닦는 비율은 55.6%로 나타나 절반 수준이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이를 닦지 않는다는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고, 칫솔이 없어서 닦지 않는다는 비율로 3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 학교 내에서 칫솔질 여부 및 칫솔질 하지 않는 이유

	수	%	순위
학교 내에서 칫솔질 여부			
예	110	55.6	
아니오	88	44.4	
칫솔질 하지 않는 이유			
화장실 환경이 불결해서	4	4.5	4
장소가 부족해서	2	2.3	6
타인의 시선이 부담되어서	4	4.5	4
귀찮아서	36	40.9	1
시간이 부족해서	14	15.9	3
칫솔이 없어서	28	31.8	2

## IV. 고안

대학생의 구강관리용품 휴대 비율을 조사하고, 휴대 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이 적절하게 구강건강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한 대학생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나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일 칫솔질 횟수, 잠자기 전 및 음주 후 칫솔질 여부 등의 구강건강행태가 더욱 올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구강보건행태를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8-10], 구강관리용품을 휴대하는 학생들은 평소 구강건강지식수준이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행태

를 갖고, 적절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양치시설이라는 물적 자원을 설치하여 양치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수행 중이다[11]. 이 사업으로 학생들은 주로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서 바른양치실천을 습관화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11]. 황 등[12]은 양치시설이 아동들의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구강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양치시설이 설치된 아동들에서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행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양치시설이 설치된 경우, 구강관리용품을 별도로 휴대하지 않고도 구강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구강건강증진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구강정책목표인 아동(7~12세)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2008년 23.7%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13], 2012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32.7%, 12세는 25.2%로 낮게 나타났으나[14], 양치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점심직후 칫솔질 수행 비율이 64.1%로 나타나[15],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구강건강행태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에게는 개인위생은 물론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대학교에서는 양치시설과 같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물적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구강관리용품(대표적으로 칫솔 세트)을 휴대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구강건강관련 인식이나 행태[6-8], 구강위생관리용품 사용비용 등[16][17]을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학생들이 구강건강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건강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구강관리용품의 휴대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98명 중에서 칫솔을 휴대하고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이 90명으로 조사되어 약 절반정도의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이를 닦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 닦는 것이 귀찮다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났고, 칫솔이 없어서 닦지 못한다는 의견이 2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입학과 동시에 휴대용 칫솔, 치약 세트를 배분해준다거나, 정기적인 구강보건주간을 정하여, 구강관리용품을 교체해주는 사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부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모든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적절한 구강건강관리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한 환경요소들을 분석하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터에서의 구강건강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이며,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탐색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 V. 결론

대학생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구강관리용품의 휴대를 권장함으로써, 대학생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지역 K대학 생활관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용품의 휴대여부에 따른 구강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관리용품(칫솔)을 휴대하는 대학생들이 휴대하지 않는 대학생들보다 구강건강관련 관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 일일 칫솔질 횟수, 잠자기 전 칫솔질 여부 및 음주 후 칫솔질 여부와 같은 구강건강행태는 구강관리 용품을 휴대하는 대학생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활터 양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의 제공이 어렵다면, 구강관리용품의 휴대를 권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구강보건활동에 대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참 고 문 헌**

[1] 이미라,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결정요인이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56-168, 1997.

[2] 김수진, 박인숙,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태 조사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5권, 제2호, pp.89-100, 2013.

[3] 지민경, “일부 대학생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 제한실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8권, 제2호, pp.371-378, 2013.

[4]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제3차년도 원시자료 분석결과, 2013.

[5] 김영임, 허희영, “보건계열 대학생 및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건강경험과 구강보건교육요구도 비교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9-27, 2008.

[6] 정승일, 배광학, 김진범, 이선미, 김설악, 김영경, 김지화, 남용욱, “치위생과와 비보건계열 학과 대학생의 불소함유세치제 사용률”,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411-420, 2006.

[7] 이재승, 이홍수,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 행태와 그 연관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8권, 제3호, pp.331-346, 2004.

[8] 박홍련, 문선정, “일부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특성과 구강보건 지식 및 구강보건 실천 행태의 연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00-310, 2013.

[9] 박일순, 윤혜정, “치위생과 학생과 일반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7호, pp.243-253, 2013.

[10] 이선미,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6권, 제3호, pp.187-192, 2006.

[11] 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구강보건, 2014.

[12] 황윤숙, 김광수, 정재연, 유영재, 김수화, 임미희, “양치시설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구강환경관리 능력 및 구강건강관리 행태 변화”,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7-40, 2013.

[13]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보건복지부, 2011.

[14]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3.

[15] 황윤숙, 학령기 아동의 양치실태 분석 및 대책 연구, 한국건강증진재단, 2010.

[16] 성경민, 문윤미,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14권, 제1호, pp.23-30, 2012.

[17] 홍민희, 정미애, “강원지역 D대학의 치면세마 실습 내원환자에 대한 스켈링 실태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조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166-173, 2009.

**저 자 소 개**

정 미 애(Mi-Ae Jeong)

중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치과임상학 등

김민지(Min-Ji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석사
- 2013년 8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공중구강보건학 등

하정은(Jung-Eun Ha)

정회원



- 2011년 8월 : 서울대학교 치의학 석사
- 2014년 2월 : 서울대학교 치의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예방치학, 치위생 연구방법론 등